

# '아시아 파워 위크' 20일 개막

## 표 대표 에너지·발전산업 행사 한국서 첫 개최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재생에너지월드, 금융포럼 등 함께 열려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너지 발전 산업 국제전시 컨퍼런스가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세계적 전시박람회 전문 기업인 펜웰(Pen-Well)이 주관하는 아시아 대표 에너지 발전산업 행사 'Asia Power Week'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Asia Power Week' 기간에는 '퍼워젠 아시아', '재생에너지월드 아시아', '퍼워젠 아시아 금융 포럼'이 함께 열린다.

지난 10여 년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주축으로 한 아세안 지역에서 주로 개최됐던 '퍼워젠 아시아' 행사는 올해부터 아시아 전지

역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아시아 파워 위크'로 새롭게 브랜드링했다. 또 전력·발전산업 기술이 우수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한국을 '아시아 파워 위크'의 첫 번째 거점으로 정했다.

'아시아 파워 위크 2016'은 발전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발전 산업의 파이낸싱을 한 자리에서 아우르는 50여개의 컨퍼런스 세션을 운영한다.

또 85개국에서 방문하는 8000여명의 참가자와 2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6개 발전사가 후원하며, 특히 서부발전을 대표로 한 발전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증대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의 공식 한국관 참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 발전 기업들에게 해외 바이어들과의 다양한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질 사업 교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해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 박흥권 두산중공업 터빈·발전기 BG장, 윌리엄 마이스너 독일 지멘스 발전가스사업부 CEO, 스티브 볼츠 미국 GE파워 CEO 등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형석 기자 azar76@

## 전력거래소, 직제 개편안 의결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 무계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지난 9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분사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직제규정 개정안은 ▲전력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 ▲스마트 업무환경, 내부 업무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팀 신설 ▲지원조직 슬림화를 통한 사업부서 인력강화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됐다. ▶관련기사 12면

조직 구성은 기존의 3본부-7처-1센터-5실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팀은 26개에서 28개로 2개가 늘었으며, 3개 지사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는 조직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전력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전체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되 사

업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지원파트를 슬림화 해 현장중심의 조직 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기후변화 조직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강화하고자 고심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

전력거래소는 기존 기후환경전략팀을 '실'로 확대해 시장본부 직속으로 운영키로 했다. 실 하위에는 REC 업무를 담당할 신재생시장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조직 내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종합조정실은 사업부서 인력강화를 위해 폐지된다. 세부 업무들은 기능에 따라 기획처와 경영지원처 등으로 통합·이관됐다. 노사협력강화를 위해 노무업무를 전담하는 노사협력팀도 새로 구성된다.

전력거래소는 또 사내 업무지원시스템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고, OA 보안강화·스마트업무환경 구현 등을 담당하는 스마트워크팀을 신설했다.

이 밖에 장기수급분석팀을 장기수요전망팀과 전력기술팀으로 분리하는 등 업무중요도를 고려해 전담팀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는 파트를 나눈 부분들도 이목을 끈다. 조정훈 기자 joh@

# 2016 한국전기산업대전 & 한국발전산업전

2016.10.5 (Wed) ~ 7 (Fri) COEX Hall B

참관사전등록  
온라인 접수중  
9월 30일까지



### 세미나 일정

일자	장소	시간	행사명
10.5 (수)	컨퍼런스룸 307	A	14:00-15:30 해외 전력분야 인사 초청 세미나(송배전 분야)
			14:00-14:30 - Urban Infeed - HVDC
		C	14:30-15:00 - Asset Performance Management with Digital Technologies
			15:00-15:30 - 산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산업 인터넷 플랫폼)
10.6 (목)	컨퍼런스룸 307	A	13:00-16:00 전직업관련 교육
		B	10:00-11:00 섹션1 : 기초연설
			10:00-10:30 - 2040 미래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 및 전망
	10:30-11:00 - 청정 에너지 기술 동향 및 전망		
	컨퍼런스룸 307	A	13:30-16:30 섹션2-1 : 에너지 신사업, 중소기업과 동행
			13:30-14:00 - 에너지신사업의 R&D 정책
		A	14:00-14:30 -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방안
			14:30-15:00 - 신재생에너지원별 정부지원 정책과 국가표준인증 추진 현황
	컨퍼런스룸 307	B	15:00-15:30 - 태양광산업 현황
			13:30-17:00 섹션2-2 : 발전분야 기술 세미나
B		13:30-14:00 - 발전용 가스터빈 로드맵 및 전망	
		14:00-17:00 - 에프리 회의 (참석자 지정 회의)	
		10:00-15:30 섹션3 : 수출아카데미	
C		10:00-11:20 - 온라인을 활용한 글로벌 유통망	
		13:30-15:30 이기는 해외 수출계약 전략 - 비즈니스 컨설팅 사례 공유 - 전략적 해외 Business Development 방법 - 제안 전략도출 방법(컨설팅 Tool 활용방안 공유) - Customer Focused Proposal 원리와 주요 성공사례등	
10.7 (금)	컨퍼런스룸 307	C	11:00-15:00 해외 신기술 세미나 (발전분야)
			11:00-12:00 - 발전기 제작 및 시공기술 (한전KPS & Ethos Energy)
			14:00-14:30 - Gas Power Systems Update
			14:30-15:00 - Air Quality Control Systems Solution

\* 동 세미나 자료는 사전 참가신청하신 분들중 현장에 오신분에게 우선 배포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분의 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나, 9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신청하신 분은 전시회 홈페이지(www.sief.co.kr) 참가사전등록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활동동의' 수락 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시회 홈페이지(www.sief.co.kr)에서 온라인 참가사전등록 후 "전기산업대전&발전산업전" 전시기간 중 방문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광고 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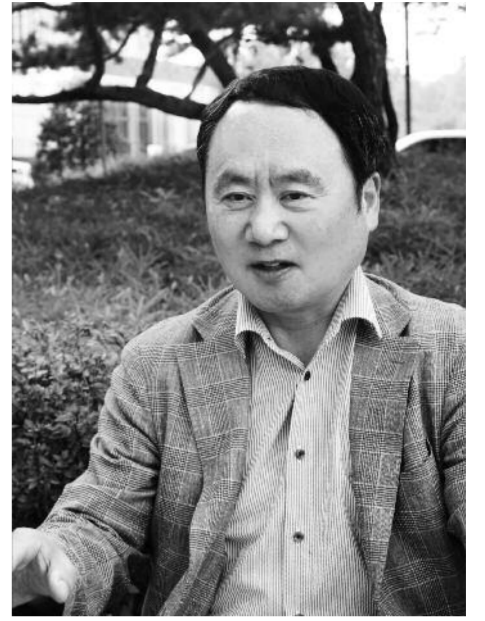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수출지원본부 전시사업팀 T 070-4825-1106, 1107 E sief@koema.or.kr

### 참관 이벤트



### INTERVIEW

이영호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의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행정에 기대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수용성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조하는 신재생에너지학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8월 3일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으로 공식임무를 시작한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신임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많은 논의들 가운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는 바로 수용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취임사에서 신재생에너지학회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도 이러한 수용성 확보와 맞닿아 있다.

그는 "취임사에 담긴 의미는 학회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라는 사명을 갖고 의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신기후체제가 시작되며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업계 전반을 리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학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수용성 문제를 가만히 뜯어보면 크게 2가지로 의견이 나뉘지요. 좁은 한국 땅에 신재생 발전을

한 포장을 진행하겠다는 일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풀어냈다.

그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학회가 독자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내 학회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도움도 받고, 신재생에너지업계 의 뜻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조직에 학회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은 관련 학회 주도로 결성돼 매년 우수기술을 선정하고 기계의 날을 정해 포상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

##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어떤 현안보다 먼저 논의돼야"

학회, 신재생 관련 목소리 모으는 구심점 역할 수행할 것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과 잘 찾아보면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많다는 의견이요. 전문가들은 주로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지만 사실 데이터적인 요소가 없어 전달과 설득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 '신재생에너지원 잠재량 조사'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전력생산이나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다. 신재생발전 입지 선정 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잠재량 조사 연구는 정부 R&D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분석의 영역이지 기술개발은 아니라는 것이 이유죠. 연구기관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자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자신감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장은 "바람차발전도, 햇빛발전도 활용되고 있는 등 잠재량 조사에 관련된 도구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전문 인력과 정교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만 주어진다면 이 한 에너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통합적인 신재생 잠재량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권이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상황별 제약조건을 가려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기술단체 총연합회'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날'을 제정해 신재생에너지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

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런 사례의 경우 학회의 권한이 크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본다"며 "지자체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생한 공무원이나 좋은 정책을 내놓은 국회의원들을 포상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분명히 손질이 이뤄질텐데, 이때 학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학회가 정기적인 국제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싶다는 욕심도 내비쳤다.

그는 "외국 학자들을 불러다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자연스러운 논의의 장을 만들고 싶다"며 "현재 학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은 에너지원별로 쪼개져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과총에 제안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학회가 중심이 돼 뜻을 있지만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이 회장은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들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이 본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pkm@

## 산자위 국정감사 26일 시작

내달 14일까지...전력부문 5·10일 두번에 걸쳐 열려

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올해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56개 기관이며,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9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산업·무역 부문과 통상·에너지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9월 29일에는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중소기업 및 산업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며, 10월 4일에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에너지공단 등 자원공기업과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개최된다.

전력부문은 5일과 10일 두 번에 나뉘어 실시된다. 5일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을 대상으로 나주에서 개최되며, 10일에는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과 남동발전 등 발전5사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11일에는 무역과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며, 13일에는 R&D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1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정형석 기자

\*세부일정은 일렉타임즈(www.electime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